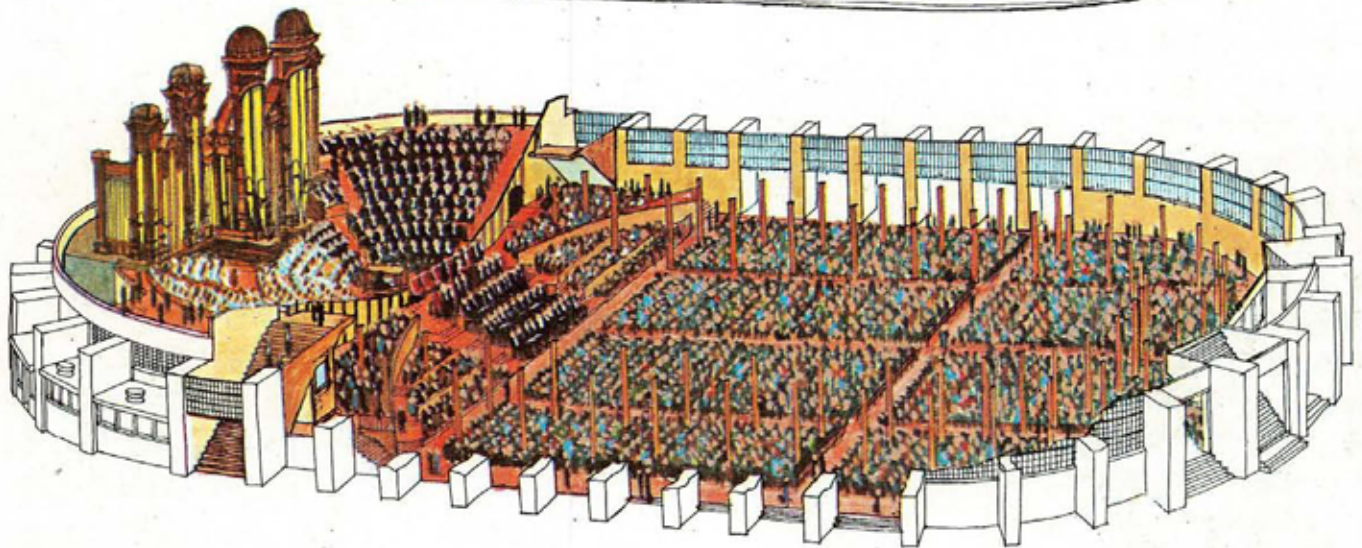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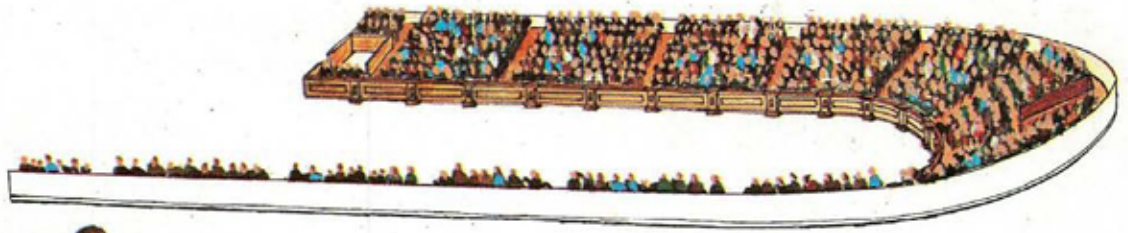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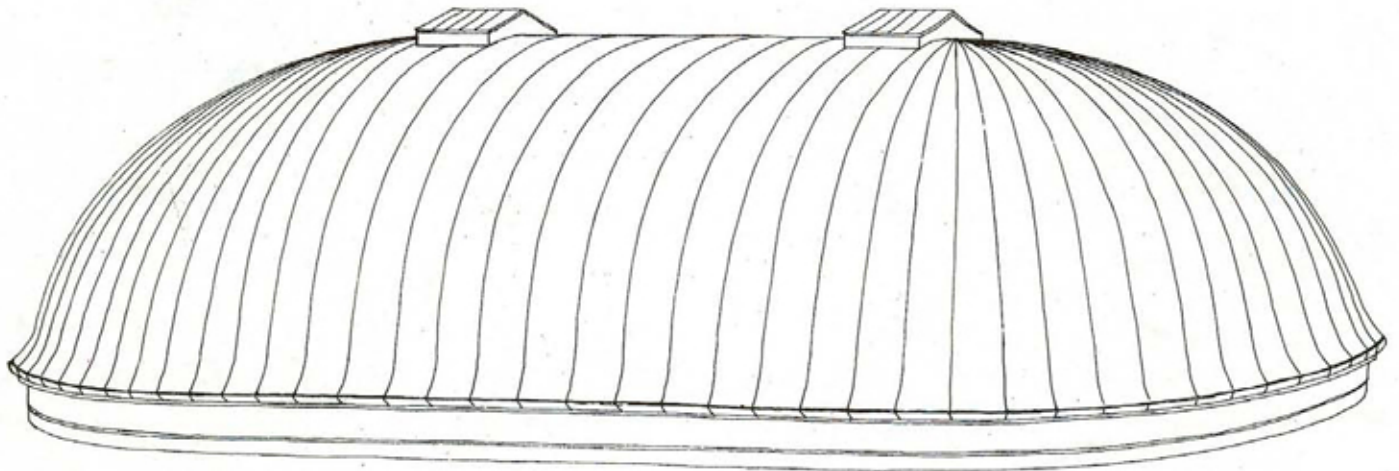


테버나클에서 개최된 성회





영감의 메시지

리그랜드 리차드
(12사도 정원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받아 그 위에 집을 짓고 받을 갈아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사는 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65: 17, 19—25 참조)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부활의 때에 자녀를 성인 남녀로 일으킬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소위 일반 기독교회의 인위적인 교리로는 이같은 안위를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중에 알게 된 친구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 는 이 슬픔에 잠긴 부부에게 귀여운 딸은 다시 보게 된다거나 알게 된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저는 친구에게 만일 자네가 그를 갈구하며 생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더 훌륭한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후로 친구는 주님의 참다운 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며 요즈음은 첫째 부활의 아침에 어린 딸을 일으킬 특권을 행사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권 제9호 순 서 1970년 10월호

■ 140차 연차대회에서의 총관리 역원의 말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조셉 필딩 스미스.....	1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해롤드 비이. 리	3
순종의 축복 앤. 엘돈 테너	4
예언자의 필요성 스펜서 더블류. 김블	7
용기 마빈 제이. 애쉬튼.....	9
요셉 스미스를 만나다 폴 에이치. 던	11
원함: 용기를 가진 부모 빅터 엘. 부라운	13
평화를 위한 기도 조셉 필딩 스미스.....	14
공정한 거래 루실 씨. 리딩.....	15
어머니를 위한 날 루시 파	16
적을 위한 파티 루실 씨. 리딩	18
관리 감독단 페이지: 일하기를 배우라 존 에이치. 반덴버그.....	19
젊은이가 부름에 응함 데이비드 웨이크링	20
젊은이여 천부의 선물을 사용하라 퍼시 케이. 팻치.....	21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로 린다 캠포라.....	22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완 하브렛 미톤	23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람 조지 듀란트.....	25
어머니는 우리 영혼을 씻어주셨다 린드세이 알. 커티스.....	26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 마저리 캐논.....	28
■ 선교부장단 메시지: 말일성도로서 무엇을 윌리엄 오. 윌티커.....	29
지방대회 소식	30
■ 내외 소식.....	32
■ 진리의 말씀: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리차드 엘. 이반스.....	표 4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10월 1일
통권 제63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이달의 표지로는 지난 4월 쏘트 레이크시에서 있었던 교회의 140차 연차 대회가 훌륭하게 진행된 태버나클의 투시화를 실었습니다. 신전 광장에 신전과 나란히 서 있는 이 건물의 그림은 제럴드 엘. 펠시퍼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태버나클 내부의 의자의 수, 원형 기둥 등 세부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그린 것입니다.

제140차 연차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서는 역사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영감적인 지도력, 위대한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굳건한 손으로 실로 많은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지상에서의 과업을 끝내고 본향에서 다른 방법으로 봉사할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지상의 왕국을 이끌어 나갈 책임과 지도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니일 3:7) 아는 우리들은 그의 지도와 지시로 이 일이 계속 번창하여 나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은 머리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신권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 의식을 집행하며 교회를 가르치고 그분의 일을 합니다.

그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 성임하여 도구로 쓰시며, 그들이 노력할 때 인도하고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며, 종이 달성하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그에게로 돌려야만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인간의 일이라면 실패할 것이나, 이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간증에 용감하며, 모든 진리에 충실할 때, 주님은 우리와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하여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

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모두가 성취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이며, 침례의 물가에서 그의 이름을 받아 들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에서 희열을 느끼며, 저의 영혼 속에 깃든 그것이 진리이며 신성한 것이라는 지식으로 넘치는 기쁨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머리로 삼아 지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제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께서 교회 제6대 대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분은 자기의 헌신적인 보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교회에 관한 모든 일을 그들과 함께 의논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고, 형제들 사이에서나 주님 앞에서는 단결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보좌에 관한 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성신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교회의 이익과 아버지의 자녀를 축복하는 일과 지상에 주님의 사업을 완전히 하는 일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은 의와 진리의 기둥이며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힘, 통찰력, 지혜를 소유한 선견자이며,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 어느 사람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엔. 엘론 테너 부대관장은 완전한 고결성과 진리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도량이 넓은 분으로, 특히 지도하고 충고하며 지시할 수 있는 관리 및 영적 능력을 축복받은 분입니다.

제가 두 부대관장을 두고 한 말씀은 12사도 정월회와 기타 교회 총관리 역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 형제에게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의 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아버지의 자녀 위에 그처럼 강한 영향력을 미칠 봉사와 책임의 위치도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참다운 형제 자매로 함께 일하는 우리들은, 앞에 놓인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독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중에 사랑과 조화의 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으며, 모든 교회에 속한 선의의 사람과 함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현재적인, 영적인 복지를 위한 사랑과 관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인류라는 가족에서 형제이며 자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우리들이므로, 이웃의 발전과 향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세상 어느곳에 있든 진실하고 선한 사람과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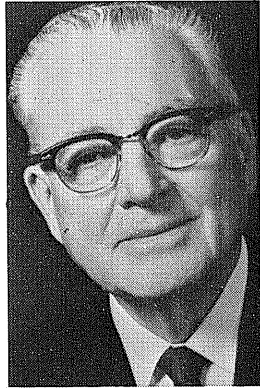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축복하여 주셔서 통찰력과 영감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충고를 구하고 받아 들이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교회의 역원과 교사, 그리고 회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의로움 가운데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화평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 때, 이 모든 것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단 제 1 보좌, 12사도 정원회 회장

● 본인은 킴블 장로와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보이드 케이, 팩커 형제, 조셉 앤더슨 형제, 데이비드 비이, 헤잇 형제, 윌리엄 에이치, 베넷 형제를 총관리 역원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알게되면 그분들의 지도력에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던 맥케이 대관장님과 맥케이 자매님, 그리고 그분의 훌륭한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의 또 다른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경전에서 이야기된 바대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조직되고 14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 다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예언자이셨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지상 교회의 우두머리로서의 직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본향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지도자가 서거한 후에는 반드시 교회에나 세상에 큰 변화가 따랐습니다. 아마도 구세주에게 드리는 예언자의 보고가 지구상의 인간의 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는 합니다.

교회의 관리상의 변동을 말하는 변화는 킴블 장로의 말씀대로 주님의 일에 많은 혼란과 좌절만을 초래할 정치적 고안이나 혁명적 방법을 피한 주님이 성임하여 주신 독특한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나 그의 여러 선임 대관장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남겨 주셨습니다.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감사의 넘으로 가득찬 사람의 마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들 예언자에 매어달리게 됩니다. 다행히 그분들의 생애, 업적, 말씀, 성역에 관한 기록을 교재로 대할 수 있으며, 교회의 기록 역사로 정리되기도 하고 그들을 추종하였던 사람의 기억 속에 간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한 유산은 어느 곳에 있던 충실한 사람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기록은 마음을 다하여 봉사 하였던 사람의 마음 속에 적히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회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교회 대관장이 돌아가신 후의 재조직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은 어떻게 선택 또는 선출되는가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신앙개조 제5조를 정확하고 간단한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교회 대관장이 될 사람에 대한 부름의 시작은 실제로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 받아 성임되고 성별되는 때로부터입니다. 그것은 예언에 의한 부름,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관리의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영감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 같은 권능에 의한 성임과 안수례로 성별되어야 사도의 직분을 소유한 12사람의 신권 정원회에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 대관장의 손으로 성임되는 사도는 교회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만일 관리 신권 소유자의 부름을 받고 교회 회원의 거수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교회를 관리하는 대관장단의 직책까지도 맡을 수 있는 신권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대관장이 없으면 대관장단 또한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다음 서열 기구인 12사도 정원회가 관리 권능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12사도 정원회 회장은 자동적으로 차기 대관장이 정식으로 그 직에 성임되어 지지받을 때까지 대관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12사도 정원회가 3년간을 관리하다가 재조직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대관장이 서거하면 즉시 재조직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관장단과 12사도 정원회 회원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습니다. 이 말은 그와같은 방법으로 선택, 성임받은 사도는 만일 “정원회(12사도 정원회 전체를 뜻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회원의 신임과 기도로써 지지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계시에서 한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 정원회의 선임 회원 즉 회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서 107: 22 참조).

때로는 선임 12사도가 아닌 분은 대관장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대두되고는 합니다. 이는 주님이 12사도 정원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라는 사실을 그 회장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경륜의 시대의 초대 예언자에게 하나님 지상 왕국에 미리 정해진 조직으로 교회 지도자에 관한 질서 정연한 계획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가진 대제사들 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

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가 되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된 자들이니라. 이리므로 이들이 부름을 받는 직분의 의무는 교회의 다른 역원과는 다르도다.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다.”(교성 107 : 22—24)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윌포드 우드럽 교회 제 4대 대관장은 당시 12사도였던 히버레이. 그랜트 장로에게 1887년 3월28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인용하겠습니다.

“.....대관장이 서거하면 교회의 관리 권능을 누가 갖게 됩니까? 이는 12사도 정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성임, 조직된 정원회) 이들 12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누가 교회의 대관장이 됩니까? 이는 12사도 정원회 회장입니다. 그는 12사도를 관리하는 동안 교회의 대관장단이 조직되어 열 두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대관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140여년간 계속되어 온 원리입니다. 우드럽 대관장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간증으로는 저는 이 교회를 조직해서 과거 57년간이나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는 한, 교회 조직이후로 사도들이 따랐으며 교회사에 기록된 바와같이 57년 동안 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사도가 걸었던 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를 교회 대관장으로 부르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할아버지되시는 하이람 스미스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거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람으로 하여금 축복과 당연한 권리로서 부친으로부터 임명 받은 신권 및 축복사의 직책을 맡게 할지어다.

이제부터 저는 모든 나의 백성의 머리에 축복을 주는 축복사의 열쇠를 지니나니,

저가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가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받으리라. 저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저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교성 124 : 91—93)

그러나 이 직책에 부가하여 이후의 교회 축복사에게는 주어질 적이 없는 특별한 엔도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저를 임명하여 나의 종 요셉과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의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로 삼느니라.

그리하여 저로 나의 종 요셉과 힘을 합하여 일하게 하려는 것이니, 나의 종 요셉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할 것이요, 나의 종 요셉은 저에게 열쇠를 보이리니, 이로써 저가 구하면 곧 받게 하리라. 한 때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신권과 신권의 은사를 저의 머리에 쓰게 하리라.

이는 나의 종 하이람이 내가 저에게 나타내 보일 일을 증거하며 저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되어 존귀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24 : 94—96)

그의 아들 조셉 에프. 스미스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교회 제6대 대관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어렸을 때 미쥬리주의 일리노이주의 박해어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하이람 스미스가 카페지 감옥에서 아저씨이자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함께 순교당한 후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는 9살 난 소년으로 마차를 몰아 미쥬리강으로부터 평원을 횡단하여 1848년 쉘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1852년 어머니를 잃고, 2년 후인 1854년에는 15살의 나이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하와이 섬으로 떠났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출신 가문인 하이람 스미스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이 기뻐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위대한 아들과 손자가 지도자로 일하는 동안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께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그들 후손과 가까운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다. 설혹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 하여도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람 스미스의 후손에게 조금전에 인용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다음 그는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고귀한 피에 힘을 다하여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저는 생애에서 가장 엄숙했던 추억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교회의 신임 대관장단이 선택, 성임된 신전의 다락방에서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13형제와 함께 맞본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한 후 약 10주 동안을 제 자신의 지나간 생애와 앞으로의 날을 점쳐보면서 보았습니다.

이동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책임으로 생기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초월하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대관장단과 12사도 정원회의 선택을 받아 이 태버나클에서 신권 소유자, 교회 회원과 이전에 이미 이곳 성회의 순서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분들의 지지를 받은 직책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륜의 시대에 지도자로 일하셨던 분들을 생각할 때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저같은 사람은 이전의 지도자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다만 시간이 갈수록 생기는 공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이 봉사한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아직도 그 직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 니파이가 구약의 선지자의 경전을 담고 있는 동판을 가져오라는 아버지 리하이의 불가능한 것같은 명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니파이는 이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 니파이는 성으로 넘어 들어가 레이벤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이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니일 4 : 5—6)

저 역시 이를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 옛날의 니파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기력과 마음과 정신을 다 할 것을 충실한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평생을 바쳐 너희를 위해 봉사 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스스로 뽑내려 함이 아니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였음

이라”고 하신 베냐민왕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 2 : 16)

충실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봉사하면서 저도 “오직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에 그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듯이 영이 인도하는대로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일의 이 참다운 교회에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의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높고 거룩한 곳에서 지상의 교회를 오늘 여러분이 대관장,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시하신 분을 통하여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순종의 축복

인. 엘돈 태너

대관장단 제 2 보좌

● 이처럼 아름다운 안식의 아침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과 방중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에게 대관장단을 대신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게 된 것을 특권임과 동시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세주를 받아 들여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킬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는 희망과 약속을 안겨다 주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 10 :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그분은 이런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을 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일에는 이러한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서 130 : 20~21)

우리를 모두는 오늘날의 상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자기 개인의 삶에, 사회에 또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무법, 방탕, 폭동의 추세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일상의 대화를 뉴스 미디어가 지나치게 다루고 있음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좇아 사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나쁜 원인을 제거하며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과 향상된 삶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순종의 축복이라는 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나으니”(삼상 15 : 22)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 받을 수 있

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신앙개조 제3조)

바로 며칠전 어떤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전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말에 진저리가 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택하기를 원하거든요”라고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지. 그러나 자네는 스스로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네.”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의 세 가지는 첫째 불사불멸과 영생의 권리요, 둘째 이를 얻을 수 있는 계획, 세째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 의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지상에 사는 동안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에게 신분이나 학식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만민에게 적용되는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자연 법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언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의식으로서나 무의식으로서, 또는 고의로나 우발적으로 과열된 난로나 고압선에 접촉한다면 화상을 입든지 감전사하든지 합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생명을 구출하려한다 하더라도.

그는 다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과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러한 자연 법칙에 예속되어 있음을 예증해 주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 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 다.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 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깨 뜨리면 고통을 받으며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 는 축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 간에 태양이 떠오르며, 전기가 무엇인지 알 지 못하나 항상 같은 조건 아래서 똑같은 반 응을 보여 주고, 태양이 일년중 일정한 날 일정한 시간에 달에 의해 일식을 하는 까닭 은 자연의 법칙은 결코 변경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자연 법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기사, 의사, 과학자가 자 연 법칙에 의존할 수 없다든지 자연 법칙을 무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 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비참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자연 법칙이나 나라의 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에게 위안, 기쁨, 안전, 안녕을 주기 위 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 법을 배워서 그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 켜 이와같은 유익을 즐기는 일을 결정하는 책임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율법은 우리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행복과 성공 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에 관계되는 율법과 법칙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율 법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쁨과 안녕을 가 져다 주거나 손실과 슬픔을 안겨 주는 작용 을 한다는 것을 밝혀 주는 데에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위대한 업 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 법칙 즉 물리, 화학, 중 력의 법칙이 가장 세부적인 면에서까지 준 수되어야 했고, 기타 이에 관계되는 법칙 을 비행을 준비하는 일에 종사한 관계자들 이 이해하고 응용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 다. 그들은 이러한 법칙을 제한이나, 장애 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 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가 능한 성공을 좌우하는 모든 법칙을 배워 그 들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칙을 순종하고 응용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입니 다. 음악가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는 학 위를 얻거나 가치있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 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과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가능하게 해주는 율법

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 고 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 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반면 율법에 버티며 순종을 거부하고 마 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는 좌절하여 반항을 시작하며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같이, 우리가 법을 깨 뜨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그 법을 존중하지 아니하므로써 실제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법 은 적용되며 우리 행동이 결과를 결정해 줍 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을 준비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법을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순 종한다면 법은 우리의 건강, 복지, 행복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법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도시, 사회, 주, 정부나 국가에 법과 규칙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법을 경시하게 되면, 자신의 자유를 상실하고 타인의 자유 를 박탈하고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법이 존재하면 국민은 통치 기구를 통하 여 법을 개선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합법적 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존 재하는 동안은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있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법이나 환경은 우리들이 결정하지 않 으면 안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지배하는 식인종의 풍습을 갖고 생 활하는 인종이 밀렵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밀렵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 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법이라 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러한 동물적 본 능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회 관계에서 인 간 행동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 있는 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활 에 적용한다면 사회 조건과 상호 관계를 향 상하게 해 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 다. 만일 우리들 모두가 이 율법에 순종하여 산다면, 오늘날같이 격동하는 상태는 없을 것이며, 현재처럼 젊은이들이 사회가 가르 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시위 를 할 하등의 이유나 요구나 욕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대에 적용되었고, 그 후 그리스도에 의해 가르쳐진 십계명 중의 몇 계명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는 도적질, 살인, 탐욕, 간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찌니라.”는 계명을 순종한다 면 우리는 집이나 재산을 지키지 않고 그냥 방임한 채 어느 때라도 외출할 수 있을 것 이며, 도적이나 강도에 대한 공포도 없을 것 이고, 생명을 빼앗아 갈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가정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중상, 모략, 간음이 없고, 모 든 사람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 로 화평스럽고 행복하게 살며, 상호간에 힘 과 도움이 될뿐 아니라, 법의 집행과 범죄 처 리에 사용하는 비용을 저축하여 이런 돈으 로 가난을 퇴치하고 보건과 교육 시설을 개 량하며 다른 가치있는 목적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명을 순종하므 로써 받는 세속적인 축복은 우리가 이루 헤 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은 지 혜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주님의 건강의 법 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모든 가정에서 모범과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보면 담배, 술, 기타 인체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 약의 사용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의 법은 100여년전에 주님께서 인 간에게 주셨으나 과학자들의 경험에 의해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독을 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이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모험을 피하 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 용하면 가정의 파탄, 육체와 영을 병들게 하고, 재산의 탕진, 비참, 고속 도로에서의 사망, 기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많은 비 극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사회와 입법자나 법의 집행자나 우리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 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날 저녁, 국내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 는 69년도에 두배로 증가 했음.” 자동차 사 고로 죽는 자의 26퍼센트가 음주후 운전으 로 발생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한 저명한 인사는 45세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 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신경 쇠약자”가 되는것보다 도리어 담배를 조금 피우며 모험을 한다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자 금연을 했던 것입 니다.

조그마한 담배불로 인한 호텔 화재는 14 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어떤 벨딩에서는 담 배불로 만불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리화나의 해독은 너무나 끔찍하며 환각 제는 젊은이를 소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젊은이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비극 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악독하고 유독

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해야 하고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님께 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 곯음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89 : 18-21)

이 보다 더 큰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 : 8-10)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 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 : 9)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말을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리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율법에 순종하면 많은 축복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율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예배와 연구를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 : 3)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7일중 하루는 창조주를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을 취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는 경건과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의 하나는 “사람이 렷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 4 : 4)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편리한 방편으로 생각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제멋대로 다루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요, 자기들의 부나 무기의 힘과 세력의 강대함을 믿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화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어떤 문화도 영속할 수 없고 단일 국가이거나 연합 국가이거나 간에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 : 33)고 하신 주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욕구나 쾌락을 만족시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도 없으며 이날의 축복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에는 타락한 영혼을 구제할 힘이 없다. 세상의 부도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없고 대학의 지혜라 할지라도 이탈하여 방황하는 영혼을 의의 길로 돌이킬 수가 없다.” 고 한 말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집에 참석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교회에만 일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첫째 되는 크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8 : 25, 28)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가르치려면 우리들 부모는 그들에게 산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려서 벌을 받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나 율법에 대해서 존경과 순종을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에 의심을 품으면 반드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해줍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가 표리부동한 신조를 가르치고 이대로 생활한다면 자녀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 : 12)는 계명에 순종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 계명을 지키도록 순종을 배운 자녀들은 성장하여 감에 따라 부모들을 공경하고 부모들에게 자량이 될 것이며, 그들은 또 자기들에게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며, 생의 기쁨을 찾고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나가서는 오늘날 세상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와 의를 가져오게 하는 책임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게 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졌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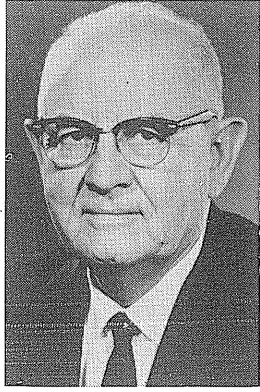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 : 37-40)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이 지구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노니라.” (교성 59 : 23)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 들이며,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 들이고 계명을 지킬 때에, 이 지상에서는 큰 기쁨 얻을 것이며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예언자의 필요성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 오늘 대회의 모든 진행은 깊은 감명과 경외를 느끼게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께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울러 십이사도 정원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그가 십이사도 보조에 성임되던 시절부터 최고의 부름을 받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갖고 봉사하면서 진실한 형제의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수년간 사랑과 감사로 아끼지 않던 조셉 앤더슨 장로와 헌신과 오랜 봉사를 다한 정력자인 데이비드 비이. 헤이트,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들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은 이 지상 생활에서의 역사적인 해인 것 같습니다. 때는 정월이었읍니다. 역사는 바뀌어 새로운 장을 넘치게 되고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었읍니다.

1970년 1월 18일 일요일 아침 한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고동이 멈춰지고 노구가 기력을 상실하여 혼수상태에서 해마다 결국은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서거하자 마치 지진이 일어나 온 세상에 해일이 퍼지는 것같이 세계의 통신망은 이 사실을 보도하며 먼 곳에 있는 수백만명의 사람들까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살아 애도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행렬은 우중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차를 기다리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읍니다.

태버나클에는 그분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입주의 여지없이 모여 조의를 표했으며 예언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영구는 경의와 존경을 받으며 안치되어 있었읍니다.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비통에 잠겨있으나 이 영감의 예언자는 그의 동료 예언자들인 요셉, 부리감, 윌포드 등을 만나는 행복한 재회를 가질 것입니다.

세상 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우리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을 것같이

생각되었읍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또 다른 별이 새로이 떠오르고 죽음은 생명의 알을 낳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끝이 없고 무궁한 것입니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가 돌아가실 때라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일순간이나마 지도자없이 방임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하게 하신 친절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경륜의 시대에 여덟 차례나 예언자를 잃었으며, 그때마다 성도들은 경건히 무덤의 흙을 덮으며 눈물을 거두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을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돌아가시자 오랜 경험과 훈련을 쌓아온 사도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어 임무를 지명하고 권능과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권능을 부여받은 이들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하여 5일간이나 계속 전진하여 간 것입니다. 이 직책을 얻기 위하여 “입후보”나 선거나 후보연설은 전연 하지 않았읍니다. 참으로 신성한 계획이 아닙니까? 나약하고 탐욕적인 인간의 약점을 초월하여 이와같이 완전하게 조직하도록 지지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십니까?

드디어 새 역사의 날이 동트기 시작하던 때에 (1970년 1월 23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통치 기구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14명의 지도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전으로 들어갔읍니다. 이들 중에는 이러한 엄숙한 교제의 순간을 이전에 경험한 분들도 계셨읍니다.

얼마후 늦은 아침이 되어 14명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는 시간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읍니다. 그동안 대관장의 짧은 공석 기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한사람의 지도자에게 즉 지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대리인인 새로운 예언자에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분은 60여년의 평생 이 고귀한 부름을 향하여 잘난체 하지

않고 수수하게 봉사하여 왔읍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관장의 최고 직책에 취임한 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도가 되는 부름을 주님에게서 받았으며 오늘날 선임 사도와 회장이 될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값진 중요한 열쇠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중대한 신전 모임에서 그분은 십이사도의 형제들에 의해 교회의 대관장으로 서 “성임되고 성별”되자 강인하고 용기있는 해롤드 비. 리 장로와 나단 엘돈 배너 장로를 보좌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두분은 모두 교사, 실업가, 공직,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를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세 분의 새로운 대관장단과 새로 개편된 십이사도회는 화려한 취임식이나 허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은 위대한 발전과 전례없는 성장을 기약하며 새 시대로 옮겨졌읍니다. 이 신세계에 회복된 복음의 계획을 소개한 이도 바로 젊은이였읍니다. 교회가 조직될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1805년 12월 23일—1844년 6월 27일) 나이는 불과 24세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38세에 순교하시자 브리감 영 (1801년 6월 1일—1877년 8월 29일)이 선임 사도와 교회의 대관장이 되셔서 30년간을 관리하셨습니다. (76세까지) 그 후 다른 대관장들은 62세에서 84세 사이의 연령에 달했을 때 대관장이 되어 79세에서 96세 사이에 일생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존 테일러 (1808년 11월 1일—1887년 6월 25일)는 71세에 대관장 (1880년 10월 10일)이 되셨고 78세에 돌아가셨으며 그의 서거로 윌포드 우드럽 (1807년 3월 1일—1898년 9월 2일)이 선임 사도 (1887년 6월 25일)가 되셨습니다. 그 후 2년뒤 그가 82세 때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 받았으며 91세로 세상을 떠나시자 로렌조 스노우 (1814년 4월 3일—1901년 10월 10일)가 선임 사도로 되셨던 것입니다. 그는 84세에 교회의 대관장 (1893년 9월 13

일)이 되어서 매우 짧은 기간인 3년 동안 재임하셨습니다. (1901년 10월 10일까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년 11월 19일)은 7일 후(1901년 10월 10일부터) 선임 사도로 되셨고 1901년 10월 17일 62세로 교회의 대관장이 되셨으며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1856년 11월 22일—1945년 5월 14일)은 일주일이 채 안되어(1918년 11월 23일) 선임 사도가 되셨고 그때 나이 62세로 대관장에 취임하셨으며 88세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1870년 4월 4일—1951년 4월 4일)은 일주일 동안 선임 사도로 계시다가 75세에(1945년 5월 21일) 교회의 대관장이 되어서 81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100번째 탄신일이었습니다.

제 9대 대관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1873년 9월 8일—1970년 1월 18일)은 5일 후 선임 사도가 되셨으며 77세에(1951년 4월 9일) 교회 대관장이 되셨고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876년 7월 19일에 출생하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1월 18일 선임 사도가 되셨고 1970년 1월 23일 93세로 교회 대관장이 되셨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존 테일러 대관장에서부터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 사이의 모든 대관장들은 62세에서 84세 사이에 대관장이 되셔서 79세에서 96세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덟 분의 대관장이 모두 평균 연령으로 73세에 대관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맡으시고 85세에 사망으로 그 직을 물려주셨음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대관장들의 재임 기간은 12년보다 조금 적으며 따라서 교회 대관장의 평균 연령은 79세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는 교회 대관장이 항상 연로하신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젊은 분은 넘치는 정력을 갖고 활동적이며 솔선적이나마, 한편 연로하신 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대화와 경험으로 다져진 안정과 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벡케이 대관장의 건강이 점점 악화해 갈 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식견이 좁은 사람들은 많은 억측을 했으며, 대관장의 공석 기간에 대한 토론이 화제로 등장할 때마다 이런 억측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백만여명의 성도들이 역대의 어느 대관장보다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연령을 들어 말했습니다. 교대의 족장들은 젊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의 자손을 다스릴 때에도 나이가 대단히 많았

며 그의 후손은 여러 세대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도 그의 백성을 다스리다 각기 175세, 180세, 110세,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이는 많았을지라도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은 그들에게 많은 지혜와 안정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전례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전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계시된 반차를 되풀이 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모든 열쇠와 권능을 소유한 선임 사도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경우도 스미스 대관장은 선임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며 그분은 성스러운 지도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계승이 있었을 때에 회복된 교회는 14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세기 동안 예언자와 “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계시와 선지자에 관한 귀중하고 중요한 축복의 중심이 되었던 한 사람의 생명이 카테지 감옥에서 총살을 당하여 순절 때 많은 사람이 의문으로 가득차 있었던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교하신 예언자의 장례는 끝나고 사도들이 그들의 입지에서 돌아와 장례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에 이미 모든 열쇠를 소유한 선임 사도가 마치 모세처럼 당당히 나서서 길을 인도하자 사람들의 의식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파란 많은 140년 동안 10명의 대관장이 교회를 관리해 오셨고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신 사도는 모두 78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차의 떠를 힘껏 당기고 위험을 무릅쓰며 우리의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인도를 받는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지시 아래 강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여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 위엄, 연령, 지위로 인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시며, 오늘 아침 그의 사랑하는 부인이 노래하셨듯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분”(시24:4) 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청결하시고 거룩한 어른이십니다. 그분은 또 주님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 최고의 직분에 오르셨으며 6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계시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는 실로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그분을 60년동안 받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신 분이며, 주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시는 유일한 예언자로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만능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젊고 패기에 찬 운동가, 실업가, 재계 인사, 농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가, 시인, 연예인도 될 필요가 없으며 더우기 은행가, 의사, 대학 학장, 군 장성,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어나 일본어, 독일어나 서반아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어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그는 성스러운 언어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웅변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의 성스러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약하고 소심한 음성을 강한 음성으로 대체시켜 주셨으며, 젊은 에녹에게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떨리도록 하는 힘을 주셨는데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행하신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리라.”(교성 1:38)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예언자는 결백, 확고한 신앙, 오명을 남기지 아니하는 선한 태도, 사랑스런 남편, 참된 아버지의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제사장이나 성직자나 장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은 새로운 계획, 진리, 해결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하여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능을 소유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흔히 세상에서 임명과 권능을 부여받지도 않은 채 직책을 오만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처럼 뿔뿔히 잘난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마 7:29)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제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항의를 받을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스러운 임명과 해의 왕국의 성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며, 봉사하고 성임하며, 영원한 자포식을 여는 열쇠를 물려 주도록 부름을 받은 권능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고대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땅의 주민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며 배반하는 자들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인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진실로 하나님의 진로가 한없이 악인

에게 쏟아지는 그 날”(교성 1:8-9) 당당한 권세를 가져야 하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결봉될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 네가 땅에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하늘에서도 영원히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땅에서 보류하는 죄는 하늘에서도 보류되게”(교성 132:46)하는 중대한 권세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왕 보다는 모세이며, 벨드사살왕보다 엘리야가, 빌라도 보다는 바울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주택이나 학교나 고층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될 필요는 없으나, 현세와 영원을 연결하고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축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언자를 따를 때에 계속 앞으로 전진할 해 왔으나 반면 세상이 이들을 경시할 때에는 칭찬과 고등과 축음이 뒤따라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메시간마다 이루 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이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출력이 센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 프로그램을 우리가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춘다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천년 동안 안내와 시기에 적절한 경교에 관한 하늘의 방송은 계속되어 왔으며, 가장 강한 출력을 가진 방송국의 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모든 세기를 걸쳐 오는 동안 예언자들은 하늘의 방송

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재방송하며 전해 왔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주파수를 맞춘 상태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었느니라.”(단 10:7)

어느날 다메섹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으나 그 광경을 본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함께 한 다른 사람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리지 아니한 이 소리는 몇몇의 사도에게 부름을 주는 두려운 하늘의 음성이었으며, 이로써 그의 생애는 바뀌고 그는 수백명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공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파장을 맞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쏘련의 어떤 우주 비행사는 외계의 우주로 나가 관찰해 보았으나 하나님과 천사를 보지 못했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회의와 불신에 가득찬 우주인들에게 그들이 지금의 천배나 되는 더 먼 거리에나 천배나 더 높은 상공으로 비행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에 미치려면 아직도 먼 곳에 있을 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탑에서, 팔레스타인의 산에서, 애급의 궁성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모세는 사막과 홍해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출 3:2)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맑고 깨끗한 원시림의 숲 속과 구

모라 언덕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와 변형의 산상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새로 성입된 조셉 필딩 스미스를 대관장을 받들어 주셔서 이때로부터 “아버지의 일을 하시게”(눅 2:49)하고 계속 주님의 “생명의 떡”(요 6:41)과 “생수”(요 4:10)를 주시며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수 3:7)고 이르신 것같이 우리의 예언자이신 그분께도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손을 들어 지지를 한 주님의 종들인 우리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주님의 다른 성도들도 축복해 주셔서 이때부터 우리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그분의 손을 높이 받들며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모두 한 음성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청중할 것같이 당신을 청중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나이다.”(여호수아 1:16-17)고 한 것같이 우리도 외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의 장막들이여!” 굳게서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할찌어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용기

마빈 제이. 애슈튼
십이사도 보조

● 며칠전 저는 몇몇의 젊은 친구들을 방문하고 또하나의 자극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체 토론과 의견 교환은 물론 개인의 문제까지도 토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골

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인의 “왜 나는 매일 똑같은 사람으로 있을 수 없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의 맨 꼭대기에서 있지만, 다른 때는 낙심하여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라고했던 진지한 그의 말은 우리의 마음 속을 파고 들었습니다.

형제와 재매님, 우리는 오늘날 굳건한 도덕적 용기, 다시 말하면 의를 계속하여 지켜 나갈 용기, 마음을 터 놓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용기, 인내할 줄 아는 용기,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을 갖는 용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덕으로 무장한 용원

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의로운 가운데 충실하게 계속하여 이러한 범주를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피하지 않고 곧 바로 나가는 용기, 잘못 인도 하지 않는 용기, 방황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열심으로 선을 추구하는 용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계속하여 진진하여 나가는 용기를 가진 자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로운 길을 계속하여 걸어나간 젊은이들과 나이든 분들이 교회의 회원으로서로 사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득히 먼 스테이크나 선교부에서 자진하여 신전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본다는 것은 희열 바로 그것입니다. 자진하여서 선교사로, 군인으로 봉사하는 수천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고무시켜 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손하게 그의 인도해 주심을 바란다면, 그의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우리들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온 힘을 그의 길을 따르는데 쏟는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축복이 우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의로운 길이고, 의로운 길은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위대한 진리와 교통신통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로마서 1:16) 요셉 스미스께서 숲속에서 하신 기도는 중요되지 않는 신앙으로 교통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젊은이들이 교통할 수 있는 통로는 효과적으로 열려 있으며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들이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해 주려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한층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젊은이들이 가족들과 서로 사귄 뿐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제까지 이를 행해 왔으며 부모들은 이러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밤이 잘 집행되면 가족 성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교회의 종합 사회봉사 계획은 부모와 젊은이들을 한층 더 친밀하게 해 주거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해 줄 뿐 아니라, 다스림과 안전에의 길로 나아가 갈 수 있게 맺어 줍니다. 어느날 열 일곱살난 예쁜 여자 고등학생이 “아빠와 저는 이제 서로의 통행 금지를 완전히 해제하였습니다. 가정의 밤

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이제 우리는 다시 같은 파장으로 통신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존중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진지하고 따뜻한 것이어야 합니다. 절도 있고 진지한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훌륭한 분위기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사랑을 경험으로 느낄 때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들과의 진실한 사귄은 소속감을 발전시켜 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알게 해 줍니다.

사랑과 연민의 정은 퇴색되지 않는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행동을 구축해 주는 덕성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부모와 지도자들과 밀접하고 친밀한 사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들과 회원들을 도우십시오. 어린이들을 나무라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부정적인 요소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이해와 동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 안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는 부모와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우리를 포기해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조롱이나 동정이나 방해를 통하여 실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신 우리에게 남득을 시켜 주십시오. 모범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부모로서 십대의 청년들에게서 “다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제가 다시 견고한 길로 들어 설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마움에 넘쳐 나오는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생활하고 이끌어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인내와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이끌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느날 흰털한 베바호의 인디안 선교사가 와서 “오늘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적은 소년이었을 때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이 우리집에 오셔서 나의 어깨를 쳐주시며 은화 한 개를 나의 손에 쥐어 주시고는 ‘이것을 갖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저축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칭찬해 주며, 격려

해 주고, 노력하며 모범을 통하여 실제 보여주는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는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한 사람을 돌아서도록 지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청년들도 절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니파이삼서 9:22),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과 어린 아이와 같은 회개와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몇주일 전 먼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에서 11살 난 소녀의 인도로 말일성도의 가정에 함께하여,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린 후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흐뭇한 경험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녀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 말인 스페인말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랑에 넘치는 기도가 끝나자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께 “이 소녀가 신전에 대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착하게 생활하여 훗날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과 매일 매일의 성실한 준비를 통하여 그 소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소망은 달성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든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1) 신앙이 있는 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중단 하지 않고 계속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매일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으로 매일 한걸음 한걸음씩 발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결손하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과 용기를 남에게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이러한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저는 그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와 확고한 목적을 갖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는 용기를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요셉 스미스를 만나다

폴 에이치. 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 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확신하고 있고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일에 대하여 엄숙히 증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북쪽 약 210km 지점은 제가 일찌기 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버몬트의 원소 카운티는 푸른 언덕이 굽이쳐 흐르고 새들의 집처럼 아늑한, 주님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출생지입니다.

월래 집이 서 있던 마당에는 안내소와 종교 전시관의 두 건물이 서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념관을 여행했을 때 우리는 딸 케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여러번 그곳에 가 보았지만, 갈 때마다 늘 고난을 이긴 영과 내적인 평화로 눈에 뜨일 정도로 현저한 감화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문자를 위해 마련한 방명록에 싸인을 하지 않고는, 또 느낀점을 적으라고 내놓은 난에다 감상을 적지 않고는 그 건물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의 딸 그 아이는 “교회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썼습니다. 저와 내내는 확실히 기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고요? 교회와 복음의 의식은 “삶의 길”이며, 가족이 모두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가므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어느 교회가 옳습니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50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1820년 아름다운 봄날 아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세상에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한 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소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제일 처음 나타난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는 뉴 잉글랜드에 살았

었고, 그중에서 많은 시간을 예언자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성스럽게 하셨고, 그가 태어난 곳 넘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 있는 화강암 기념탑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기쁨에 벅찼고 성령이 “진실로 그는 예언자”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언자 요셉스미스에 대하여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자요, 예언자로서의 한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저는 그의 인생이 왜, 어떻게 이어져 나갔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브리검 영이 말씀하신 “경륜의 시대의 통치자”로서의 요셉 스미스뿐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살지 않았다.”(브리검 영 설교집 459페이지)라고 말한 그분에 대한 이해와 진가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촛불이 되는 생애는 모두가 좀더 분명히 보고져 원하는 생애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타인에 대한 봉사과 사랑으로 일관된 생애가 바로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없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 중의 한분이라는 것을 크게 의심합니다.

그는 키가 1.8m가 넘고 몸무게가 95kg이나 되는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맑은 피부와 밝은 색의 머리카락과 어떤 사람의 마음까지도 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람쥐와 같이 날쌔었고, 사자와 같이 강했고, 어린양과 같이 유순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그를 “그는 열kul 전체에 수염을 기르지는 않았지만 위엄 있는 의도와 신사다운 태도를 늘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부인은 “현재 있는 그분의 사진 중에 생존시의 그분의 위

엄과 비교할 수 있을만한 사진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고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의 바른 면모를 아무도 포착할 수가 없다”고 그의 부인은 말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경험한 바를 좀더 깊이 관찰하여 보면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뚜렷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성스러운 순간에는 엄숙하지만, 그의 예언자적인 기지와 음악, 시,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대단히 유명한 기운찬 웃음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변하는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융통성을 놀랄만큼 가졌습니다. 그는 경전이나 4개국 언어를 공부하다가 베스링, 공놀이, 장애물 넘기 등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같이 하자고 그를 끌어들이는 때 그의 단순하고 유쾌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저속하고 야비한 것들을 싫어 한다는 것도 금방 그의 표정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으면서도 후에는 언제나 더 큰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한 옹바르게 이끌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야의 활동을 즐기는 튼튼하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일을 즐겨했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율리라고 가르칩니다. 나무 신전을 짓는 동안 그는 자주 채석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석장이나 나무숲이나 목초밭에서 그와같이 일하면서 복음의 회복을 배웠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변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 그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할 때는 마치 지구를 흔들어 놓을듯이 보여서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를 보고 하늘에서 온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그는 때때로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제일 큰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요셉은 칼 샌더버그(미국의 시인이자 전기작가 1878—1967)가 말한 바와 같이 “벨벳트와 강철”이 잘 조화된 예수님과 꼭 닮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사람들을 강제적이거나 위협적이 아닌 부드럽고 온유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계명만을 배우고 요셉 스미스와 같이 생활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백케이 전 대관장님께서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되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전능하신 분의 전통에 부드러운 화살이 되고 싶다.” “나의 소리는 항상 평화를 원하는 소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위대한 고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어 낸 분입니다. 그는 4개 주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여섯명의 자녀를 낳자마자 잃었고, 테러와 위협과 독살을 당할뻔 하였지만,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내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리감 영은 “요셉은 38년 동안에 천년 동안에 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해와 습격을 받았지만, 리디아 베일리의 말에 의하면 “그의 얼굴은 별빛 램프와 같이 온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인도했고, 베드로와 같이 말씀했고, 바울과 같이 썼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그의 마음은 에녹의 마음과 같으며, 영원과 같이 팽창해 나가며,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미래에 관해서 백 오십여개의 진술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중에 수백개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의 생애동안 더 많은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대로 그의 글을 뽑아 본다고 해도 말일에 대해서 쓴 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글, 편지,

말씀 등은 무척 광범위해서, 한 인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가능한 것같이 생각됩니다. 물론경, 모세서와 아브라함서, 교리와 성약,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 등은 모두 830페이지이며 자신의 역사, 연설, 회의록 등은 3,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워 오고 있으며, 우리의 이 많은 행복은 요셉 스미스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 스미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한 발은 지상에, 한 발은 하늘에 걸쳤던 영적인 양서류였습니다. 에드워드 스티븐슨은 “그는 무한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윌포드 우드럽은 “그는 영원한 지혜가 샘솟는 우물과 같이 보였다.”라고 말했고, 파레이 퍼. 프렛은 “그분은 영원을 응시할 수 있으며 하늘을 통찰하며 온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미국이 주님의 인도에 따르게 될 선택된 국가라고 가르치셨고, 이 커다란 땅이 아버지의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합중국의 헌법은 훌륭한 표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늘의 것보다. 이것은 헌법의 자유를 향유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르고 피곤한 이 국가에게 큰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물과 서늘한 응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는듯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방패의 역할을 하는 큰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다.”(교회사제 3권 304페이지)

그는 결코 가벼운 짐을 지게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강한 등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끊임없이 탄원했음을 보아서도 확실히 그가 예언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은 영에 깨우침을 받아 자기들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제일 원리이다.”라고 가르치신 뜻을 이해했습니다. (교회사 제 6권 305페이지)

어떤 사람은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한분의 인격체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유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일뿐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에 일반 기독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요셉 스미스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사실이 진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이라고 찬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보여준 모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은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순수해 질 것입니다. 그는 암살 당하기 전 카테이저로 가는 길에서 “나의 양심은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 앞에 자기의 생명을 검사받는 사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844년 숙명적인 날, 그는 얼굴에 물감을 칠한 150여명의 폭도들에 의해 암살 당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넘어뜨린 모진 재앙은 물몬의 팔을 마비시켜 버렸다. 그들은 이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점점 커다란 사회에 말려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 저의 말을 듣고 계시는 수백만의 청취자들은 이 말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예언자를 살해하고 진리를 말살하려 했지만, 진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했수가 지나감에 따라 더욱 위대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요셉 스미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거룩하고 진실한 예언자로서 “내가 죽고 없어져도 영원히 남을 진리와 덕의 능력과 원리를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지금도 예언자라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의 정신은 후대의 예언자들에게 이어졌고, 오늘날 죠셉 필딩 스미스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원함 용기를 가진 부모

빅터 엘. 부라운
관리 감독단 제 2 보좌

●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지 빌링(미국의 해학가 1818—1885)은 이 진리를 의역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땅히 가야할 길로 가도록 어린이를 교육하라. 그리고 자신도 그 길을 따르라. 가야할 그 길로 자신도 따라가라.” 우리가 가야할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국제적으로 이름난 교육자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주제는 마리화나(일종의 마취성 있는 식물)였습니다. 그는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회적 습관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가정으로 보내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순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정부고관 한 사람은 “나는 가정이나 교회같은 곳에서 쓰는 말과 카데일 파티에서 쓰는 말이 다른데, 이것을 우선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날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명의 아버지들이 어떤 문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이웃을 선동하며 경찰들의 강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차 바퀴에 바람을 빼버리라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면서 들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비판을 가하게 되자, 영화 제작자들은 대중들이 좋아서 사불 영화를 만들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몇몇 지방에 상영된 영화 21편을 보면, 내용이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람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단 세계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영화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만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허가된 영화의 한 장면은 비천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술이 취해서 여자의 옷을 찢어버리는 장면이되자 관중들

의 웃음 소리가 여기 저기서 울려 나왔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성인들이 즐기는 오락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성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까? 카멜레온이 빛깔을 바꾸는 것과 같이 우리도 환경에 따라 성격을 바꾸어야 합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씨도 분위기에 따라 바꾸어야 합니까? 우리의 속된 동물적 본능에 호소하며 작가나 배우들의 음담패설같은 것에 멋 모르고 따르게 되는 영화를 보러가지는 않는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들과 같이 범을 어집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압력이야 어떻든 우리의 원리를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녀들을 가야할 길로 나아가도록 하며, 우리 스스로가 걸어갈 길로 따르도록 교육하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교회의 거의 모든 스테이크 부장들과 감독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젊은이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과거에는 전혀 용납되지 못했던 행동 표준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담패설은 언어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듣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소위 바람직한 사회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용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춘화도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가장 큰 병원 정신요법 책임자는 “정상적인 12~13세의 청소년들이 호색문학을 읽게되면 동성애로 빠져 들어가기 쉽게 된다. 당신이 진강한 소년 소녀들을 택해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결국 변태적인 버릇이 몸에 베어 일생동안을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까지 말합니다. 어떤 교회의 한 지도자는 최근 두 남성간의 동성 결혼식을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로서 세계의 보도기관들이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

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도덕적 몰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들입니다.

얼마전 아내의 쇼핑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새로 선 슈퍼마켓의 잡지 판매대를 쳐다본 일이 있습니다. 한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잡지의 표지 그림과 표제는 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동반하고 오는 상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성인들이 이러한 발간물들을 사지 않는다면 얼마동안이나 이런 책들이 출판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정도까지 썩어 들어가도록 방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변화는 하루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또한 알기 어렵게 일어나므로 우리의 대부분은 전혀 변화가 일어났는지조차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크레이인이 말한 도덕의 부패는 다음과 같은 때에 벌써 시작되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즉 “서구인들은 자신을 과신하며, 자신이 운명의 결정자요 자기 행위의 최종 심판자로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벌써 고루한 생각으로 되어버렸다. 즉 우리는 진화되었다고……생명은 우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죄는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학적인 문제며…… 그는 아직 옳고 그름을 믿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고 믿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의 차이는 큰 것이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죄는 ‘반사회적’인 것이 되었다. 즉 죄는 범죄가 되었고……정직이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도덕질은 나쁜 것이었다. 당신은 친구와의 우정을 상하게 될 것같이 불성실한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만일 종교적인 집회에 참석했다면 이는 다만 전통에 합당한 일을 한 것뿐인 것이다. 덕성은 그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보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이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데이비드 페파엘 크레인, “하나님의 대리인이 있는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0. 3. 51—52페이지)

이러한 종류의 철학에는 안정도란 없읍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흐르는 모래와 같이 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번덕과 습관과 철학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의 부패를 막을 모든 원리를 확신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목인이 너무도 쉽게 용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청년들의 삶을 위해 건전한 고착된 지표를 설정하기를 두려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표준과 규칙이 있어 이러한 표준들이 건전한 토대에 기초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표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크레인씨가 말한 것같이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인생은 목적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약을 먹지 말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같은책 53페이지) 젊은이의 생활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성인은 어떻게 해서든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젊은이의 생활에 선한 방향이거나 악한 방향이거나를 막론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인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야할 길로 가도록 하며, 자신이 가는 길로 가도록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건전하며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자신이 먼저 돌아가야 하며, 그들도 우리들의 생활로 이끌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의하여 이 복음을 즐겁게 생활에 적용하려고 믿고 사용하는, 정직한 심일조를 내는, 채무자와 이웃에게 정직하며, 교회의 지도자를 진정으로 지지하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부모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며 의롭게 이야기하는, 활발하게 사회적 표준

을 지키는 부모, 정숙한 복장과 말과 행동을 하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는 그의 영적인 자녀이며, 그분이 위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 주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자신이 한 행위에 따라 심판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명을 받아 들이며 복종하는 부모, 주님 외에 딴 산을 두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도적질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않는 부모, 온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3—16 참조)

저는 이 길만이 이 지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또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평화를 위한 기도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회가 훌륭한 대회였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들은 좋은 말씀들을 소중히 간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훌륭한 교회 총회를 마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모아 새로운 대관장단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한 은혜를 나누어 갖기 위하여,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감화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신앙과 간증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로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고자 이곳에 모였으며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교성 59:5)고 말씀하신 바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대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사업을 수립하기 위하여 새롭고 감동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나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께서 주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 5:16)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애써 소망하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며,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앞으로 뻗어 나가리라는 확신과 축복을 여러분께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함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늘의 의와 진리가 이 세상에 쏟아 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 주님의 증들로부터 나오는 빛과 진리의 말씀에 유념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모든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그들의 심령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며,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회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모든 원리들을 지지하며, 자유와 정의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때에 세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도되어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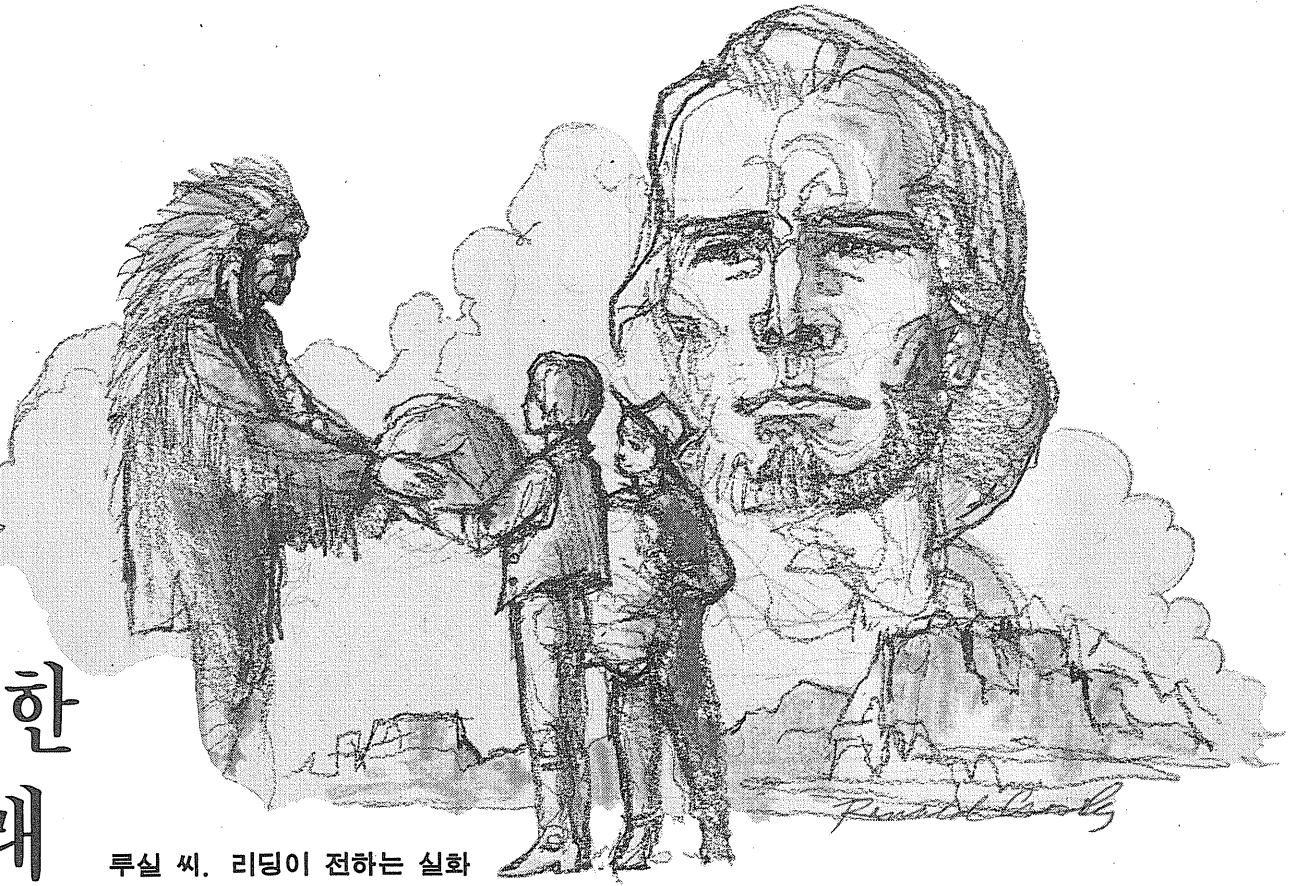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슬퍼하는 자에게,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함정에 빠져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그리고, 도움과 원조가 필요한 자와 원군이 필요한 자와 지혜와 그분 혼자만이 줄 수 있는 선하고 위대한 일들이 필요한 자에게 모두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같이 저는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과 연민의 정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분에게 관하여 배우며 그분의 명어를 배면 마음이 쉬을 얻게 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인즉, 이는 그분의 명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까닭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 11:29—30참조)

저는 말일성도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부탁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

공정한 거래

루실 씨. 리딩이 전하는 실화



● 봄이었습니다. 유타의 카납 부근에 있는 봄은 모래 산들은 따뜻한 봄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아버지께서 보루넘어 십여리 떨어져 있는 인디안의 천막으로 심부름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채소밭에서 잡초를 뽑아야 했을텐데, 이렇게 조랑말을 타고 푸른 초원을 지나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말을 타고 인디안과 물건을 바꾸러 가면서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대신 모두 아름다운 경치와 따스한 봄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바호족의 나이 많은 추장 푸랑크는 소년들이 천막으로 들어가자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푸랑크는 소년의 아버지에게서 좋은 말 한필이 필요할때 누가 한마리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추장 푸랑크는 소년들이 말에서 내리는 것을 거들어 주고 나서, 그들이 바꿀 물건으로 가지고 온 말을 대강 보더니 곧 그들 바로 앞에서 담요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담요의 색과 모양이 특출하게 아름다웠으나 10살 먹은 제이콥은 동생 윌터에게 우리는 어랑같이 행동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가로 저으며 바꾸려고 가져온 말에 비하여 너무 작으니 좀더 가지고 오라고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인디안은 잠깐 주저하는듯 하더니 곧 들소 가죽으로 만든 무릎 덮개 두장과 담요 몇장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소년들은 그들에게 준 담요가 아름답고 또 많은 것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부 돌돌말

아 조랑말에 묶어 달고 자기들이 준 것보다 많이 받아 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서 마당으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시는 아버지의 눈이 둥그레지시며 담요를 피셨으나 아무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담요와 무릎 덮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두 묶음으로 나누어 다시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다렸지만 조용히 일만 하셨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나시더니 한 뭉치는 안으로 들여다 놓고, 남은 것을 보시고 이것은 너희들이 더 받아온 것이니 도루 갖다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콥과 윌터가 다시 말을 타고 인디안의 천막으로 향했을 때 날은 흐린것 같아 보였고, 또 그들은 다시 왔다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추장 푸랑크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반겨 주었습니다. 그는 팔을 벌려 담요 뭉치를 받고나서 그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다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실 줄 알았다. 그분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단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단다.”라고 말했습니다.

흐리던 봄날은 갑자기 다시 개인 것같이 보였고, 자기의 아버지 제이콥 함블린 (함블린, 제이콥—인디안에게 사도로 알려진 사람, 1819—1886)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

어머니를 위한 날

루시 파

● 네바호 학교에 다니는 슬림 걸에게 일주일 가운데 제일 즐거운 시간은, 예쁜 모습의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 오셔서 서가에 꽂힌 책 중에서 읽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 읽으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날 오후에는 신기한 일과 이상한 곳을 소개하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슬림 걸은 자기가 고른 책을 가지고 자리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는 잠깐 쉬었다가 책장을 열고 “특별한 날”이라 제목한 곳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장 맨 처음에 “어머니를 위한 날”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입은 옷은 자기 어머니께서 입으시는 옷하고는 전혀 다른 벨벳 부라우스와 긴 스커트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도 슬림 걸의 어머니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늘 보여주는 친절하고 인자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날”이라.



슬림 걸은 입을 나갈수록 기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선물과 꽃과 그리고 사랑으로 모시기 위한 특별한 날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친절하시며 참을성이 많으신 자기 어머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꼭 그렇게 해 드려야지.”라고 슬림 걸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자기는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책에서 본 것과 같은 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좋은 선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선물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무역 상점보다도 훨씬 더 먼 상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의해 주위를 살펴 본다면 자기 마을 언덕과 바위 사이에 피어난 야생화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훌륭한 노루 가죽신을 남모르게 만들어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슬림 걸의 열의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꼭 이것들을 해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큰 책상이 있는데로 가서 선생님이 돌아 보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수줍어 하면서 “저어, 종이 한장 주시겠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까지 말하고 크게 숨을 한번 들여 마신 다음 “어머니께 드릴 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책에서 꽃 모양과 가장자리 장식을 전부 베끼고 나서 열심히 참을성 있게 크레용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사랑을 말로 표현해서 적어 넣었습니다.

노루 가죽신을 몰래 만들려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 나중에 알고는 전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일은 학교수업도 없는 날이고 그녀의 계획과 준비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 열심히 해놓은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걱정에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에서 본 것처럼 좋은 것들이 아니라서 비웃음만 사게 될 바보같은 일일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잠을 깨었을 땐, 동녘이 마약 밝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마치 봄바람과 같이 호간(네바호족들이 사는 흙으로 덮은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언덕

을 지나와서 풀밭과 돌이 많은 곳을 살펴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의 계획이 결국은 훌륭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와도 같이 그곳에는 꽃이 많았습니다. 금방 이렇게 많은 꽃을 한아름 꺾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돌아와서 여름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집 옆에다 만들어 놓은 오두막 옆에 있는 대나무 통에다 꽃을 꽂아 두고 시들지 않게 물을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그 통 옆에다 노루 가죽신을 갖다 놓고 색칠한 카드를 놓아 두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책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슬림 걸은 만족한듯이 방긋 웃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 갔습니다. 오늘 아침은 꿈을 꾸며 서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불을 피우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가족들을 다 깨워 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호간에서 나오셔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시며 “오 호! 이게 누구야?”라고 불가에 꾸부리고 서 있는 슬림 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 뒤에 있었습니다. 슬림 걸이 거의 아침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보시고 “어머니 놀랍게도 우리 아이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슬림 걸은 부끄러워하며 선물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사랑과 감사함으로 어머니께.”라고 쓰여진 카드와 함께. 꽃을 보시고 또 노루 가죽신을 손으로 만져 보시며 어머니의 눈에서는 기쁜 눈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슬림 걸이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일을 할게요. 아기도 제가 돌보겠어요. 오늘 하루는 마음 놓고 마음대로 쉬세요.”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눈물은 뺨을 흘러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쁜 눈물을 흘리시며 웃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같은 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오늘은 나의 동생집을 방문해야겠다. 둘이 같이 무역 상점에 내다 팔 용단을 염색하는데 쓰는 열매를 맺는 묘목을 구해와야겠다. 내 딸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준 이 날을 값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지만 그곳에서 하루를 다 보내지는 않을거다. 집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어머니의 입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날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날”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슬림 걸은 생각했습니다. ○

적을 위한 파티



●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펠과 페기는 층계에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 노는 것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노는데 같이 놀자고 초청을 받아 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학교로 전학을 가도 그들은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쌍둥이인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자기들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크고 낯선 도시로 이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사 다니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의 재미있었던 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펠과 페기는 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녀는 금발머리인 로라라고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라를 친구로 만들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을 놀리거나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라는 매일 펠과 페기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 다른 아이들 하고만 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밤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아버지는 읽으시던 저녁 신문을 내려 놓으면서, 텔레비전도 안보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애들을 보시고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다시 신문을 집어 들고 보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깊은 생각에 잠겨서 머리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아이들을 자기 의자에 같이 걸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야기해 보렴. 나의 귀여운 이이들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는 서로 얼굴을 쳐다 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께서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일이 있느냐, 아니면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러느냐?’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처음엔 대답이 곧 나오지 않았지만, 페기가 자기는 외롭다고 아버지께 말하자, 펠도 침묵을 깨고 참을 수 없다는듯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둘이 한꺼번에 불만을 쏟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인정 깊게 잘 듣고 난 다음 아버지께서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그런 아이들을 우리집으로 초대하자.”

처음에 펠과 페기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신이나서 아이스크림과 파자 그리고 빨간 풍선 등을 준비하자고 떠들다가 그만 똑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잖아.”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지금 초대할 친구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이번에 하는 초청은 적을 위한 파티가 될 것이니까. 학교에서 너희들에게 불친절했던 아이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란다. 두고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펠과 페기는 그대로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 그들은 모두 전에는 가져 보지 못한 훌륭한 파티였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지만, 펠과 페기는 결코 다시는 적을 위한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대할 사람이 없어졌으며, 신기하게도 새로운 학교에서는 모두 친구들만 있고 적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라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실 씨. 리딩이 전하는 실화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일하기를 배우라

존 에이치. 반덴버그

●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이나 은사와 함께 장자 상속권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 상속권을 갖게 된 사람은 거의 다 이 권리를 정성을 다하여 존중하며 보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두 이 장자 상속권 즉 우리가 원하는 성품을 갖도록 해주며 소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자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자 상속권이나 은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아는 젊은이는 성공의 문을 열어 줄 이 귀중한 장자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상속권이 귀중한 재산인데도 매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만아들 에서가 그의 장자 상속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관해 히브리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브리서 12:16-17)

바울의 메시지는 에서의 이 예에서와 같이 낭비해 버린 어제는 회개를 통해서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게으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해 버림으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방법과 일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시기는 젊었을 때인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매일을 지나쳐 버린다면 일하는

방법을 알게되는 기회는 슬며시 지나가 버리고 대단히 귀중한 이 장자 상속권 마져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 시력과 청각을 잃은 고 헬렌 켈러(헬렌 아담스 켈러 저술가이며 강연자 1880—1968) 여사는 일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 모르나 일하는 것이 이를 귀중하게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의 가치는 대신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창안력을 건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권회 정원회나 보조 조직의 각반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마음 속에 명심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일요일에 일하는 직장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2. 일하는 장소가 교회의 표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3. 집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참가해서 젊은이는 자기의 외모나 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결하고 빗질을 잘 하고 잘 다듬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은 항상 고용주의 호감을 사게될 것입니다.

다음의 기사는 이 문제에 대해 신문에 발표되었던 글입니다.

“이 신문사에서 신문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응모한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던 태만한 학생들이었다. 그런 친구들은 지배인의 사무실에 들어 오기도 전에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다. 거절을 당한 젊은이들은 깨끗치 못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단정치 못한 외모에 머리는 귀를 덮고 더러운 손에 타이도 안매고 너절한 구두를 닦지도 않은 친구들이었다.

이번 방학에 일자리를 얻은 행운의 젊은이는 여러 가지로 얻는 것도 많고 수고도 많이 할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이제 고용주들의 선택 권한이 커진 것이다. 그들은 일선에 나서서 활동하며 가장 말쑥하고 똑똑하며 빈틈없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다.

본 신문사에서도 매일 석간마다 ‘구직’이라는 광고란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의 청년들은 신문 배달원의 일자리를 얻으려 애쓴다고 해도 이제는 응모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뱃장은 이제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몇달의 방학 동안 일하는 것을 배우기를—즉 일을 해주고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말고 일을 하므로 성장하게 될 자신을 위해 권고합니다.

주님께서는 “나 주는 시온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최악 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또 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하나니,”(교성 68:31-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찰스 킹스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싫건 좋건 그날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야 할 일을 밀고 나가면 게으름으로는 절대 얻지 못하게 될 극기와 자제와 부지런함과 강한 의지와 즐거움 그리고 만족과 많은 덕성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젊은이가 부름에 응함

데이비드 웨이크링

질문 우리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특별한 부름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대답 그 누군가가 당신이나 당신의 선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식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과, 권능있는 사람을 통해 완전 침수로서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계명을 모두 지킴으로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지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모두 두끼를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며, 세끼나 그 이상 금식을 했을 때 지독하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무척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이것들을 전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일생 중에 가장 값진 부름은 자기의 동포들을 좀더 행복하고 좋은 생활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 25:40)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에게 주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직책에 부름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생활까지도 완전히 바치는, 즉 이 세상을 인간에게 좀더 훌륭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들의 재능과 재산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백성들은 완전한 계율과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즉 그들을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임으로만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업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을 기도하고 의롭고 깨끗하며 복음을 공부하는 생활을 해

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음주와 흡연이 사교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도덕의 표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표준은 의입니다. 이것은 신성하며, 명예로운 남성과 덕스러운 여성이 되게 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며, 행복한 가정과 영존하는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를 대표할 수 있게 준비하며, 충분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었나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훌륭한 성품을 갖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업은 불요불굴의 투지입니다. 기후의 변화는 제일 먼저 겪는 고통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과 낙심이 자주 찾아 옵니다. 육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팽팽한 긴장의 생활을 견디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장로들은 기독교 신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사는 숨기는 것이 없으며,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어서 풀이 죽어 보이지 않으며, 진리와 덕과 지혜의 말씀, 자존 그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충실하며, 자기가 한 말은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꼭 지키며, 하나님과 인간에게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나가는 장로들은 꼭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성 4:2 참조)

“보라, 받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그러므로 추수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낫질하게 하여 날이 저물기 전에 거두어 자기의 영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구원을 쌓아 두게 하라.

참으로 낫질하여 거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느니라.” (교리와 성약 11:3-4) ○

젊은이여 천부의 선물을 사용하라

퍼시 케이. 핏처

십이사도 지역 대표

전 베르린 선교부장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사는 대개 복음의 원리를 사랑하고 그것에 헌신한다고 가장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어떤 경매인이 오래된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고 큰소리로 참 좋은 바이올린이라고 선전을 하고 난 다음 아주 싼 값으로 팔테니 값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경매인이나 오래된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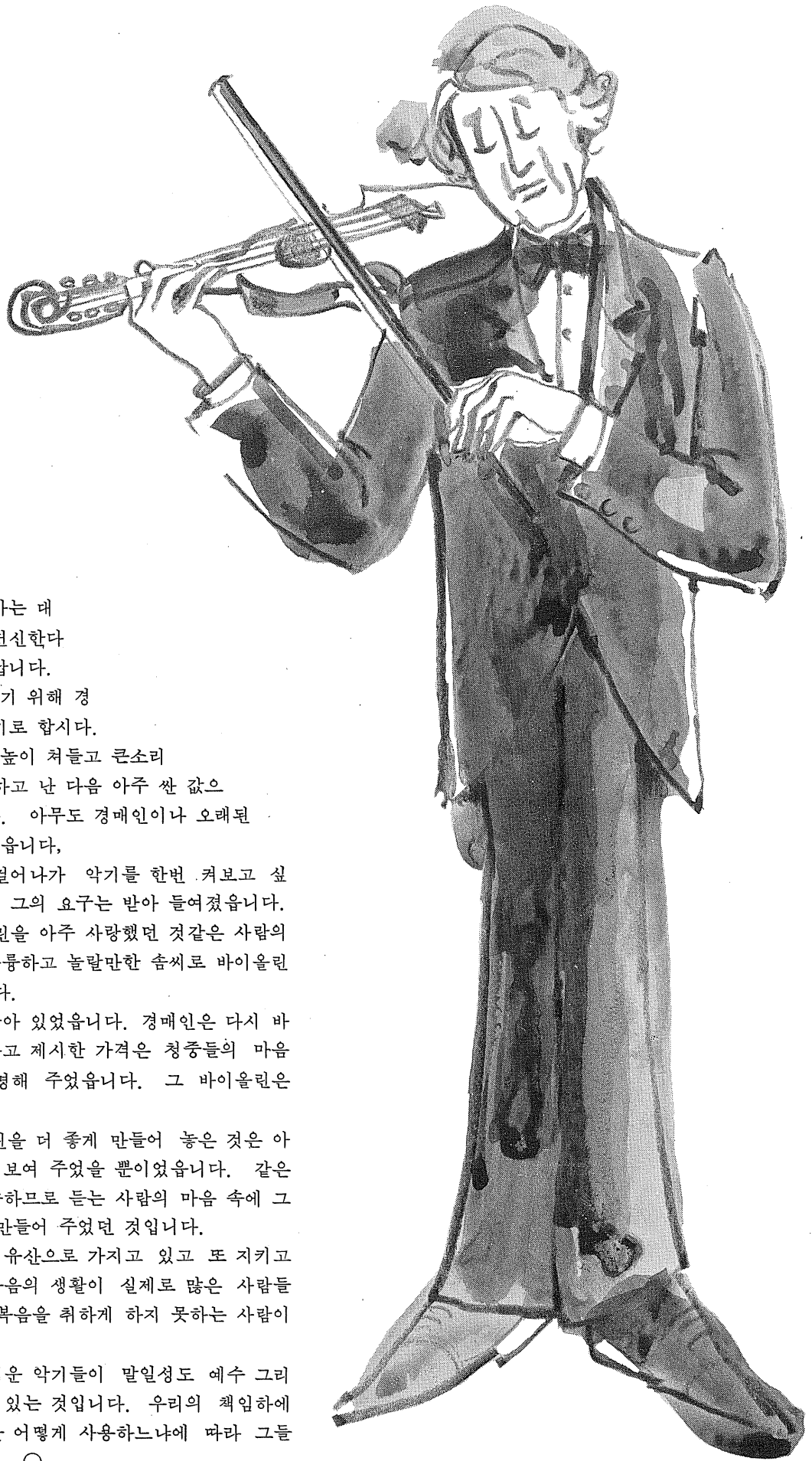
그러자 한 노인이 그 사람에게로 걸어나가 악기를 한번 쳐보고 싶는데 팬찮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익숙한 숨씨로, 오래된 바이올린을 아주 사랑했던 것같은 사람의 태도로 정성껏 조율을 하고 나서, 훌륭하고 놀랄만한 숨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청중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감동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인은 다시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사겠다고 제시한 가격은 청중들의 마음에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역역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노인이 처음에 내 놓았던 바이올린을 더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기의 기능을 실제로 보여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노인이 잘 연주하므로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고 또 지키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생활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므로 인자의 복음을 취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악기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 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하에 있는 지역 안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로

린다 캠포라

● 당신은 전세에서 용감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계획이 제시되었을 때 지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삶과 빠로된 처소를 얻고져 하는 열의와 희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떠나는 것은 싫었지만 지상에서는 두 사람이 당신이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니파이일서 1:1) 훌륭한 부모님에 대한 젊은이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선해서 뽑은 영들로서, 뿐 아니라 그의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는 이 두 분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계시다면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며 존경과 효도를 다 하라는 하나님의 판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합니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가, 아니면 데이트를 한 후 불켜진 부모님의 침실 앞을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지나갑니까?

장소와 시간과 친구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이고 이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친한 말씨를 쓰는 젊은이들과 같이 그분들을 “할멈” 혹은 “늬은이”라고 부릅니까? 꾀마

동생들과 함께 집을 보아 부모님들이 구경이라도 같이 가실 수 있게 해드립니까? 어머니께서 한번밖에 입지 않은 새옷을 자기가 입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젊은 엘마의 아버지였던 엘마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엘마는 회개하고 능력있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말썽꾼이어서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병어리가 되게하였습니다.

존경과 순종과 경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한 생활, 복음의 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변치 않는 굳은 간증입니다. 이는 신전 결혼을 위한 목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해의 영광에, 큰 저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신전 결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젊은 때가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을 가장 많이 끼쳐 드리는 때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는 감정과 강한 충동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것도 우리와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우리를 도와 주고 인도해 주고 싶어할 뿐입니다.

세상에 오기 전의 영은 순수하고 용감하고 열의에 넘치며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올 때와 같이 순수하고 선택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가지의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매일 생활해야 합니다. ○

훌륭하게 들려준 좋은 이야기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 보조자료의 하나이다.

낭독한 좋은 이야기는 생명이 없다.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예외이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예수,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면 잠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아야 한다. 이 말은 배경 조사는 물론 감정 이입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가?

성구를 기억하여 말해 주라. 성경에 담긴 말은 아름답고 힘차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사람을 마주 대하고 성구를 말할 때는 연속성과 시선 마주 보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여러분은 성구를 암송하는데 본모기를 보여야 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완 하브레흐트 미튼*

● 종교 교육의 중요한 일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이야기를 준비하여 들려주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경전에 있는 이야기와 관련된 공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확신과 진실을 나누어 갖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야기 자체는 이

*이완 하브레흐트 미튼 자매는 오레곤 교육대학 음악과 조교수이다. 연주회와 오페라 가수로서 북미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연주를 한 바 있고 1955년 태버나클 합창단의 유럽 연주 여행시 독창을 맡았다. 조동 협회, 주일학교, 상향회 교사로 일해 왔고, 현재 살렘 스테이크(오레곤주)의 지휘자이다. 남편 죠지 엘. 미튼 형제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으며 모두 살렘 제2 와드 회원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사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계획과 준비

경전의 이야기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속에 담긴 영적인 특성을 느껴 이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유능한 교사는 그 의미와 취지를 깨닫고 “자기가 깊이 감명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낄 것이다. ...단지 정신적인 것 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나누려는 충동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루스 쏘이어란 사람은 말하고있다. 어린이들은 교사의 열성과 흥미로 말미암아 경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발전시키고 복음에 대한 감사를 더욱 크게 간직한다.

복음의 이야기는 성인 이야기이므로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게 해석해 주기 전에 성인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준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공과 교재가 어린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어휘를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반면 우리가 표현하는 영과 간증은 경전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다. 또한 우리는 참고 문헌이나 경전의 주해서를 통해서 이야기와 관련된 부가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생생하게 감정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게 하여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의 이야기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과장하려고 절대 꾸미지 않아도 재미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는 관련성이 없는 세부 사항을 애써 꾸미려고 하여 이야기의 단순성과 효과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께서 이야기(비유)를 들려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만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대답이 있다고 상상하는가?

여러분이 가진 크고 작은 간증은 이야기 속에 반영된다. 생각, 준비, 내적인 확신이 없는 이야기는 가식이고, 진실하지 못하다.

어린이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대답하므로써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발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무서워서였을까? 사실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어 주었는가? (요 11:35 참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깊이 감명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는 강렬한 충동을 갖고 있다.

이야기가 어린이의 생활에 연관이 되면 흥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야기의 모든 면을 마음 속으로 충분히 이해한 뒤 "반원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내가 바라는가?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하여 반원의 경험과 연관성을 맺게 할 수 있는가?"를 교사는 자문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니파이가 그의 백성에게 행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을 비유로 가르쳐야 한다." (니일 19:23)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그와 대응하는 비교와 예를 계속 찾지 않으면 안된다.

연습과 발표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무엇보다 교실에서는 물론 교실 외에서도 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가 찾으려고 하면 이야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공과를 하기 앞서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면 발표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반원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활기에 차 있는가? 여러분은 효과적인 제스처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

녹음기는 자기 평가와 향상을 가져 오게 하는 귀중한 보조 기구이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녹음하여 들어보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교를 살펴 보

라. 여러분은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고 싶은가? 값싼 소형 녹음기는 여러분의 화술 향상을 위해서 돈을 지불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연습은 또 여러분의 자녀나 그들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할 수 있다. 계속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내용을 마음 속에 분명히 읽힐 수 있으며 즉흥 음악에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개념이 떠오르게 된다.

단어는 감각, 촉각, 미각, 시각, 청각을 암시하는 말을 사용하라.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개성과 확신을 느끼게 하고 반을 방문한 성인들의 제언과 평가를 기쁘게 받아 들이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세하고 분명히 이야기의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여러분이 자주 듣고 말하는 이야기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법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리고 새로운 통찰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를 되풀이 하라. 어린이들에게 깊은 이해를 하도록 이끌어 주는 질문에 상세하게 대답하므로써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발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복음의 이야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상상과 확신을 갖고 들려주면 오래도록 신선하고 영적인 교무의 여운을 남겨 줄 것이다. ○

교재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낭독하는 것만큼 공과를 지루하게 하고 해치는 것은 없다.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에 의해 흥미있거나, 단순하고 지루하게 되거나 한다. 성공적인 이야기는 시각 보조자료의 양이나 이야기를 낭독한 횟수에 달려 있지 않고, 이야기 내용의 파악, 개인적인 간증,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들려주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모두 한가지 중심되는 핵심, 개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연은 의미를 산란하게 만든다.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직접성과 간결성을 관찰해 보라.

훌륭한 이야기는 경청자를 위해 질문에 모두 답변해 주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주 질문으로 끝을 마쳤다. 경청자 자신이 결론을 내려야 했다.

11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11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11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일서 4장 7절

40장 내 정성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네

13장 주는 내 목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람

조지 듀란트

● 몇달 전에 새로운 와드로 이사온 우리들은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와드의 아름다운 추억은 새로운 와드에서 얻는 경험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점점 멀리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떠나온 와드에서 경험한 행복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의 가장 훌륭한 반에 속해 있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사를 잘 알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받는 지도자의 지시를 받는 동료 매제사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와드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언제나 아이들의 이름을 꼭 부르며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아이들은 그가 자기들을 염려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신권 가진 형제들과 같이 제 곁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서 칭찬받을 나이가 되자 이 의식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증인으로서 그곳에 참석하여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는 안수를 할 때에도 그는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했습니다. 또한 장님이 집사가 되었을 때 그는 축하의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으로 출장 중에 있을 때는 매일 집으로 전화를 걸어 주며 저의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는 먼저 우리를 찾아 악수를 하며 반겨 주었고, 언젠가 제가 병이 났을 때인데 그는 다른 형제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하여 병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 우리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는 전연 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태도는 우리도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훌륭한 교

사도 위대한 학자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하는 영적인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그의 말이 아닌 그가 보이는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왔을 때 아론 신권을 소유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였고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 했으며 같이 운동이나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우리는 뒷동산 잔디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왔고 참으로 우리의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복숭아가 든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눌 때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옛날의 와드에서 얻은 아름다운 추억과 그곳의 많은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저의 가정 부름 교사였습니다. ○



어머니는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셨다

린드세이 알. 커티스

린드세이 알. 커티스 박사, 웨버 스테이트 대학(유타주)
제2 와드 감독, 현재 부인과 의사로 개업중에 있으며 전
국 신문 연명의 의학 문제 담당 기고자이다.

● 열명의 자녀를 모두 그들의 부모가 토요일 밤에 목욕을 하게 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짜맞춘 물그릇을 엮게 되어있는 새 난로는 전에 사용하던 낡아빠진 석탄 난로 위에다 남비를 엮어 물을 데워야 했던 수고를 훨씬 덜어 주었다.

어머니는 무릎을 굽히시고 어린 자녀들을 한명씩 차례로 때를 밀어 주셨으며, 마친 뒤에는 세심한 검사를 하셨다. 이제 거의 반세기가 지난 오늘, 어머니는 우리 피부의 때를 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이 어린 두 소녀가 그들의 어머니(나의 어머니의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인디안이 들어왔

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통나무 집의 문이 열리기 전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믿고 있었다.

통나무 집을 살피고 난 인디안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여자들만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먹을 것만 가지고 소녀들과 어머니를 전혀 해치지 않고 그냥 가버렸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어릴 때 십일조를 푼푼히 모으기 위해 손수 뜨게질 하여 만드신 초록색 줄이 있는 회색 병어리 장갑에 관한 어머니의 개척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심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10전을 모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돈을 감독에게 가져가서 교회의 십일조 기록부에 이름이 적히게 했다. 이렇게 시작하여 주님께서 받을 수 없도록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회색 장갑은 이 어린 소녀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말 3:10) 시작했던 것이다. 병어리 장갑이 불룩해지면 질수록 어린 소녀의 신앙도 두터워 졌다.

좋은 관리와 검약을 배운 그녀는 요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교육을 위한 문이 열렸고, 또한 그녀가 교사가 될 자격을 갖도록 문이 열렸다.

그 후 이 어린 소녀가 결혼을 했을 때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생을 하실 때에도 병어리 장갑에 계속 주님의 십일조를 보관했다. 결국 그들의 축복은 너무 많아 회색의 작은 병어리 장갑에는 십일조를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장갑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은 어린 소녀에게 십일조의 법은 가르쳐 주었음은 물론, 그 교훈은 백여년 동안 그녀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져 내려왔다.

한번은 어머니께서 막대기 하나를 쥐고 쉽게 부러뜨리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막대기 열개를 한데 묶으시고는 그것을 부러뜨릴 수 없음을 보여 주셨다.

“너희 열명이 사랑과 충성을 한데 합치면 너희들의 힘은 백명의 힘과 같을 것이다.”라고 어머니는 설명해 주셨다. 막대기의 묶음은 계속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칠 때 할당해 주시던 것과 같은 공의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과오를 범한 사람이 항상 자기의 회초리를 꺾으려 갔던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 각자가 받을 벌에 따라 크기를 맞추어 회초리를 꺾어 오게 했다. 우리는 현재의 생활 형태에 따라 우리가 받을 보상이나 형벌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실 필요는 없었다. 누구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존경을 드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 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첫번째의 관심거리였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친밀하고 중요했던 친구는 감독과 가정 복음 교사였을 것이다.

감독이나 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불친절한 말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권고를 존중하며 자랐다.

동정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어머니가 상호 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실 때 양자로 삼으셨던 와드내의 연로한 홀아비들에게 잘 차린 음식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항상 일요일 만찬은 넉넉히 준비해야만 했다. 어머니가 해임이 된 후에도 그들은 우리 가족과 인연을 끊지 않았고, 임종시까지 그들의 음식 저장소는 가득차 있었다.

어머니의 신권에 대한 신앙은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다. 언젠가 누이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몹시 앓아 누워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종종 그렇듯이 집에 한동안 계시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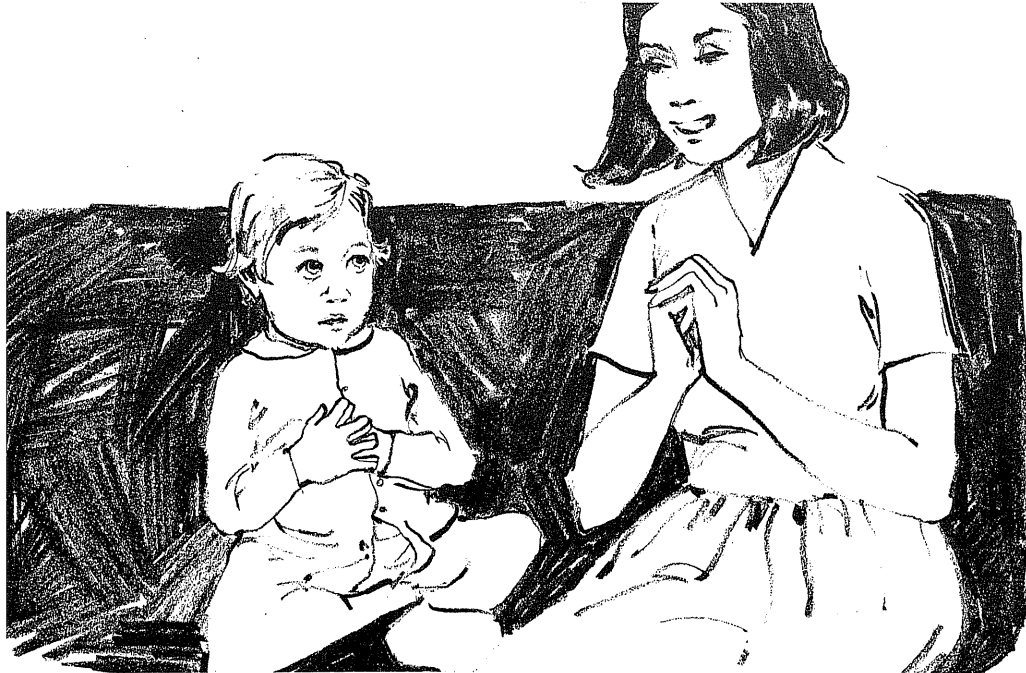
마침 우리집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남자가 두 사람 있었다. 어머니는 재빨리 그들에게 가서 대신권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셨다. 그들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경험이 없어 병자 축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빨리 저와 함께 갑시다. 축복한 기름이 있으니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어요.”하고 어머니는 말 씀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우리 중에 어머니가 보여 주신 신앙의 교훈과 신권의 중요성과 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적이었다. 그럴 때면 거울 앞에 똑바로 선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 내 자신과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자문하시곤 했다. 대답은 명백했다.

진실로 어머니는 우리 몸의 뼈를 씻어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을 씻어 주셨던 것이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준비하도록 도와 주신 어머니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보상을 갚을 수 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실 때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고 예수를 가르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에게 대하여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

마저리 캐논

● 한 젊은 어머니가 주말 여행을 떠나며 18개월 난 남자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어요. 오, 한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이에게 음식을 주실 때 양손을 한데 쥐게 해서 그가 자기 음식에 대하여 간단한 감사를 하도록 시켜 주세요. 우리는 또 아기와 같이 밤에는 가족 기도를 한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아빠와 함께 아기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으시고 아기가 늘 하던 기도를 같이 하신다면 아기는 더욱 포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할머니는 딸의 모습이 거리로 사라지는 동안 딸의 부탁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들이야 말로 현명한 부모들이라고 생각했다. 18개월 동안 형성되는 습관은 8년 동안의 생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자기 딸의 생활 철학을 바로 이웃에 사는 젊은 어머니의 철학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아기가 두살 반이 될 때까지 직장에 다닐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도 전연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와 교회의 교리를 가르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제시하셨다.”(교성 68 : 25)고 했다.

유아 발전을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것이 유년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에 있어 개인의 발전은 네살 이전에 배운 것에 의존한다고 믿는 심리학자들이 많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가

유년기의 민감한 시기를 한번 지나가면 결코 그와 똑같은 자연스러움과 안정감을 갖고 배우지 못한다는 데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유의하여 그러한 시기를 이용하려 한다면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도 있다.

딸애 메릴리가 두살 되었을 때인데, 그애는 남편이 나를 위해 병자 축복의 안수를 할 때 오빠와 언니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회복이 되었다. 그러한 삼일 후, 저녁 때가 되어도 메릴리가 먹으려고 하지를 앓았다. 나는 딸애가 열이 난 것을 알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엄마, 엄마가 아팠을 때 아빠가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나았지.”하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딸애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하고 부탁을 했다. 그리하여 아빠는 딸애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었고, 다음날 아침 그애는 완쾌되었던 것이다.

이제 메릴리는 열살이 되었다. 계속 그녀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강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일곱째 아이가 딸의 의미를 알기 전인 3,4개월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아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팔에 아기를 안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속삭일 때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귀여워 할 때마다 이 말

을 되풀이 했으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들려 주었다.

이따금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내가 이 어린 아이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는 처음 사랑의 분위기에서 그 말을 익혔고 나중에는 그것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걷기 시작하자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천연색으로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아들의 방에 걸어 두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지상에 보내 주셨으며, 구세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돌아가셨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아들의 나이 여섯살이다. 크게 자라서 요람과 놀이장도 작아졌다. 그러나 아들의 대화와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사실 아직 아기였을 때 그가 처음으로 배운 것이었다. 먼 훗날 그는 무엇보다 이러한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그들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열망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릴 때부터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들은 크게 성장한 뒤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며, 부활은 물론 승영을 얻어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아브라함3 : 26)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 부모는 주님께 우리의 중요한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일성도로서 무엇을

윌리엄 오. 위티커 선교부장 제2보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말일에 회복된 이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인 계시를 받는 예언자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초기에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성별되어 그들의 비용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 회복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수고로 우리의 종교를 알고 해마다 우리와 같이 성도로서 불리우도록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물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흥차, 커피,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단번에 물몬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서 친구들은 곧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알려진 이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물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진실해야 하며, 결코 이를 숨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과,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에 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정직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두 끼의 식사를 금식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며, 건축기금과 지부예산을 현금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기심이 없이 자기의 수입을 주님과 나누는 성도는 자기가 바치는 작은 희생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하게 교통하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시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위안과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고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발전시키려 애쓰며, 교회내에서 우리의 첫째 되는 책임은 가족에 대한 것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아울러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들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된 교회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들은 계보 조사와 신적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물몬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 보조 조직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며, 반원을 가르치고 기록을 보관하고 음악을 인도하는 것을 배우며,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시민으로서 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물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쓸모있는 시민이 되며 나라의 법에 순종함도 배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의 회원이 될 때에 스스로 칙례 성약을 통해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이를 행함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몬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몬임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우며, 저의 친구나 동료들이 알고 있는 다른 훌륭한 물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 주면 자랑스러우며, 쏘트레이크시를 방문한 친구들이 그곳의 성도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좋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생애를 교회 봉사에 온전히 바쳐 헌신하므로써 주님의 참된 교회가 이곳 한국에서 발전하며 번영하게 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리차드 엘. 이반스

● “어떤 사람은 유혹을 벗어나면서 자신의 수신 주소를 밝혀 둔다.”*
고 어느 괴벽한 관찰자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무엇이 유혹을 불러들이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들뜨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그마한 흥분 때문이거나 때와 장소가 나쁘고 못된 이유로 한번 빠져보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우리는 사고를 자초하고 유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나 건전치 못한 관심을 갖고 행동하여 유혹을 자초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확실히 결정하게 하라. 그리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힘차게 할 것이다.”고 한 멘슈스의 말과 같이 행동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종종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을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조금 열어 두든지 절반쯤 또는 일부만 열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 어떤 경우는 아주 큰 것이 됩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속히 지나가는 것이지만, 생은 참으로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며, 가야 할 좋은 장소도 많고 해야 할 훌륭한 일이 많은데 불미스러운 일에 홀려 세월을 허송하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부질없이 사소한 나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중심과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은 조금더 많이 하고 그리하여 결국 거리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표준, 법, 생의 안내, 권고, 계명,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게 안전하며 유덕한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의 한계를 밝히는 선을 그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화평과 자존심은 덧없는 쾌락과 안목이 좁은 방종과 위험하고 비천한 것을 추구하는 모험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절벽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절벽에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벗어나면서 자신의 수신 주소를 밝혀 둔다.” 유혹이 당신을 따라 다니지 않기를 바란다면 관심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

*멘슈스, 연설문 제4권, 기원전 32년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론 테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70년 10월 1일 발행(매월 1회 1일 발행)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 932

값 50 원